

#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초기 50년사(1924-1974)

조동호 지음



John T. Chase  
1905-1987

John J. Hill  
1913-2009

Harold Taylor  
1904-1976



Patricia A. Kim  
1946-Present

Richard G. Lash  
1928-2001

Gorden H. Patten  
1933-2018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은

신약성경에 담긴 교회의 순수성과 본래성 및 그 능력을 회복하자는 ‘환원운동’을 3세기에 걸쳐 펼치고 있는 독립교회들의 공동체(association)이다.

‘그리스도의교회들의 개혁운동’(스톤-캠벨운동)은 인도주의, 평등주의, 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것으로서 영미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다.

## 스톤-캠벨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인물들

- 미국 제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1831-81),
- 영국 수상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1863-1945),
- 미국 제36대 대통령 린든 존슨(1908-73),
- 미국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1911-2004),
- 소설 벤허의 작가 루이스 윌리스(1827-1905),
- 장학프로그램 입안자 J. 윌리엄 폴브라이트(1905-95),
- 미국 최대 석유회사 창업자 토마스 W. 필립스(1835-1912),
- 미국 최대 교회 설립자 밥 러셀 등이 있다.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초기 목회자들은  
상당수가 독립운동가들이었다.

## 최성진 장로/목회자

평안북도 정주군  
용포동기독교회  
문인동기독교회

독립만세시위로  
징역 1년형 받음



남양현기독교회의 장로 최성진(1937년)  
평북 정주군 용포동기독교회와 문인동기독교회를 섬겼다.

## 김요한(흥범) 목사

협성신학, 미국 밀샐스대학 수리  
과 졸업, 에모리대학교 신학석사

만세시위사건 때 체포되어 감옥  
에서까지 만세를 외쳤으며,

‘기독교회’ 제3대 포교관리자로서  
신사참배 거부로 3차례 투옥



김요한 목사, 1937년  
밀샐스 대학(Millsaps college, 미시시피 주  
잭슨)에서 수리학과를 졸업하였고, 에모리 대학교  
(Emory university, 조지아 주 애틀랜타)  
에서 B.D.(오늘의 M.Div)를 받았다.

判決

江原道春川郡春川南天板里百五十四番地 李炳天 基督教徒

李炳天

四月五日二十一年

同通川郡史西面史倉里五百五十七

判決原本

朝鮮總督府裁判所

爲地 在春川郡春川南天板里百五十四

番地 在春川郡春川南天板里百五十四

基督教徒

全興範

二月二十二年

江原道春川郡史西面史倉里五百五十七番地

基督教徒 李炳天

0466

이영천(무직, 세브란스전문학교 중), 김요한(흥남) 목사, 조선어 교사) 원익상 전도사의 조선총독부재판소 경성지방법원 판결원본(1919.06.12)

全興範

教徒ニ配付シ殘餘ハ官憲ノ裁覺ヲ恐レ前記  
「テラ」方ノ脈ノ下ニ德隱シ置キタル  
事實判明シタルヲ以テ趣意書一〇五枚及宣布  
文三六枚ヲ發見押收セリ而シテ全興範ハ檢  
舉セシモ李炳天ハ五月二日滿州ニ赴クト稱  
シ京城ニ出發シタル形跡アリ手配中

天道教徒ノ返還

天道教徒ノ或者ハ教主兼京熙ノ獨立宣言ア  
リタル以上ハ如何ナル能容アルモ教徒トシ  
テ之ヲ實行ヲ期セサルハカラス生アル者ハ  
何レノ時ニカ一展ハ死セサルハカラス何ソ

不穩文書配布者檢舉

1919년 5월 12일  
김요한 목사 검거  
문건(헌천검찰국)

四月三十日春川ニ於テ國民大會趣意書及宣  
告文ヲ鮮人官吏數名ニ配布シ未ハ五月十五  
日ハ議和會議ニ於テ朝鮮獨立問題ノ討議セ  
ラルル日ナレハ此日ヲ以テ官吏ハ辭表ヲ提  
出シ一齊ニ獨立萬歳ヲ高唱スヘシ 辭表ヲ提  
勸請シタル者アルヲ探知シ投索ノ結果春川  
居住米國人宣教師「テラ」朝鮮語教師李興  
範ナル者春川西面郡參事ノ三男李炳天(京城  
セブラス醫學專門學校生徒)ヨリ前記多數ノ不穩文  
書ヲ受領シ内敷枚ヲ春川ノ鮮人官吏及郡蘇



최상현 목사(1891-공산군에 피남)  
 연희전문학교 제회 졸업, 연경대학교(수학)  
 협성신학교 졸업, <신학세계> 편집장인 역임

耶蘇青年會聯合會出席團體及代表者	
地名	代表者名
東大門	崔相鉉
貞沔	盧俊鐸
勝洞	洪東德
宋橋	洪東璇
尚洞	尹福榮
仁寺洞	金漢泳
石橋	趙鎮萬
仁川	申鉉大
蘆池洞	辛永默
東大門	李淳鏞
貞沔	金成鎬
勝洞	尹權
宋橋	金應集
尚洞	尹炳宜
仁寺洞	趙誌鎬
石橋	金相滿
仁川	姜天錫
蘆池洞	
地名	代表者名
群山	李重煥
金海	金聲哲
開城	許鏞
鳳山	田養暖
新燕	宋濟元
洪城	柳丙秀
三陟	金源大
順天	李觀景
宣川	姜基一
水浦	吳錫均
群山	朴相玉
金海	張昌鉉
開城	金澄柱
鳳山	安斗燮
新燕	
洪城	金在鎬
三陟	金夏卿
順天	田孝成
宣川	
水浦	

1085  
 야소교청년연합회 출석단체 및 대표자명단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1921년/대정 10년 5월 7일)



만교 최춘선 목사  
(1921-2001.0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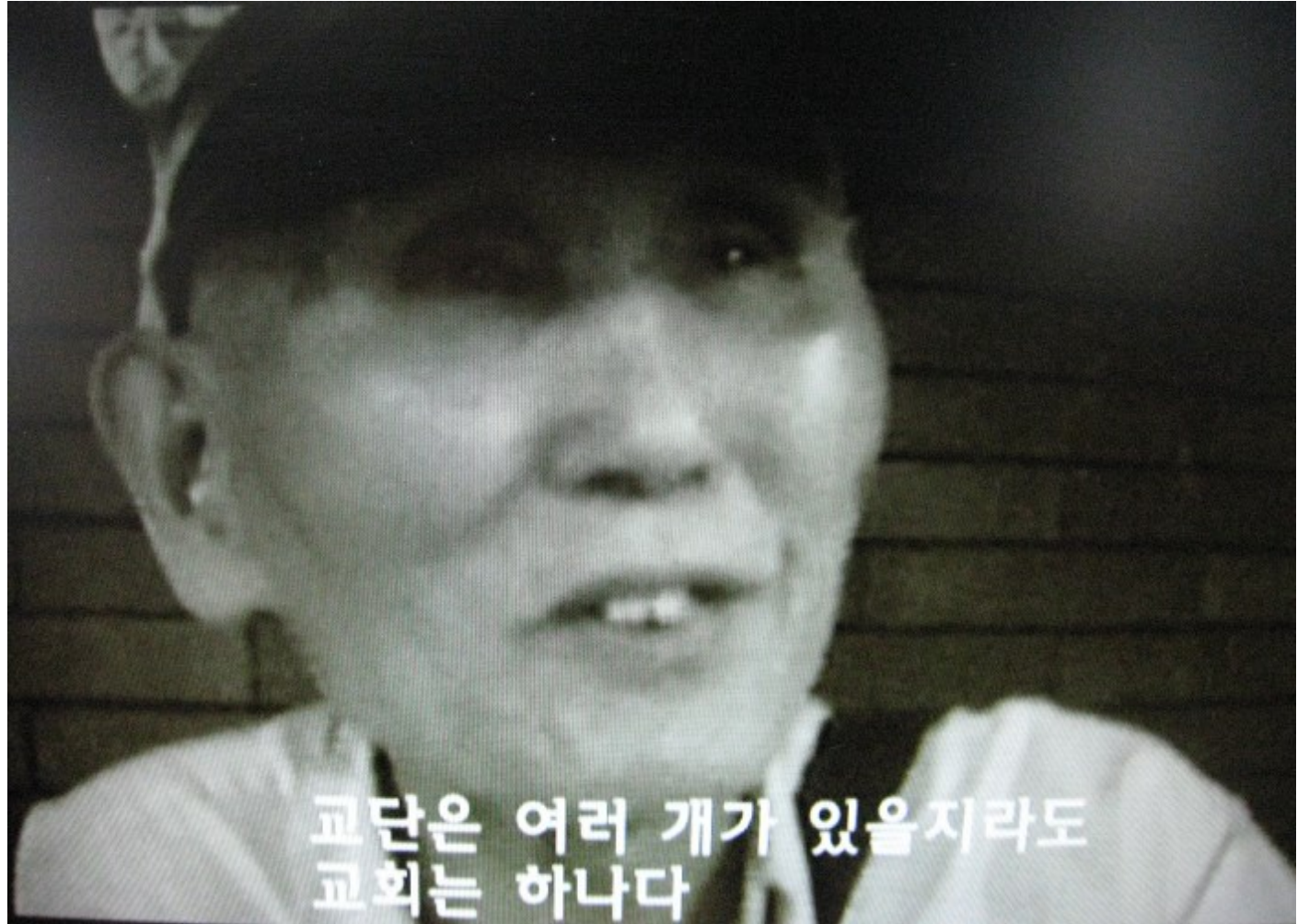


도쿄 와세다 대학 졸업, 광복군 섭외부장,  
김은석 목사의 반천련, 김포그리스도의교회

## 최춘선 목사는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

“... 예수 십자가는 생  
명의 젓 줄기, 평화의  
젓 줄기, **십자가 젓 줄  
기 하나, 교회 하나**, 교  
단은 여러 개가 있을지  
라도 **교회는 하나다!**”



○敍任及辭令

○大正九年九月二十一日

釜山、馬山、木浦、晉州及東萊へ出張ヲ命ス

○彙報

○官廳事項

○官吏發着 慶尙北道及忠清南道管内へ出張中ノ朝鮮總督府官報 第二四三八號 大正九年九月二十五日

○隨習領事交迭 在新義州支那共和國領事館隨習領事浦ニ轉任ニ付同地隨習領事張其ノ後任ヲ命セラレ陳隨習領事館ニ在勤ノ旨九月十八日附ヲ以テ京城駐在同國總領事ヨ

○司法、警察及監獄

○辯護士名簿登錄 德島縣士族佐藤秋二ノ申請ニ因リ日光州地方法院檢事局ニ於テ、東京市四谷區永住町二番地塚岡リ同月十八日京城地方法院檢事局ニ於テ執モ辯護士名簿ノ

○調査及報告

○布教届出 布教規則第二條ニ依リ布教届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届出月日 所屬教宗派又ハ本寺ノ名稱 布教者ノ住所 布教者ノ氏名  
五月二十三日 眞宗本願寺派 京畿道京城府若草町百七番地 杉山 顯正  
七月二十九日 同 同 同 日野 愛兼

○布教廢止 布教規則第二條ニ依リ布教廢止届ヲ提出シタル者左ノ如シ

廢止月日 所屬教宗派 布教者ノ住所 同上氏名  
大正九年七月 基督教救世軍 忠清北道永同郡永同面積山里 成 樂 紹  
三十日 同 同 同 アーランド、  
同 オットホム



성낙소 목사(1890-1964, 내수동, 필요동교회) 한문수학, 경성구세군사관학교, 경성성서학원,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 역임

# 성낙소 목사

1919년 독립만세사건으로  
1920년 7월 30일  
**포교폐지 당함**  
조선총독부관보 제2438호 2  
면(대정 9년 9월 25일)

○布教所移轉 布教規則第九條ニ依リ布教所移轉届ヲ提出シタルモノ左ノ如シ  
届出月日 所屬教宗派及 舊布教所所在地 新布教所所在地  
六月十日 眞宗本願寺派本派本 盤安北道新義州府常 平安北道新義州府常  
願寺新義州布教所 盤安北道新義州府常 平安北道新義州府常  
願寺新義州布教所 盤安北道新義州府常 平安北道新義州府常

同 同 同 沃溝郡寶德里 全羅北道沃溝郡大野面寶德里  
同 同 同 教會堂 教會堂  
同 同 同 厚昌邑教會堂 平安北道厚昌郡厚昌面郡內洞  
同 同 同 北洞說教所 咸鏡南道長津郡新南面新下里  
同 同 同 鯨水洞說教所 平安南道寧遠郡小白面鯨水洞  
同 同 同 新德里美監理 平安南道龍岡郡新寧面新德里  
同 同 同 美監理教會 教會  
同 同 同 美監理教會 教會



## 오현팔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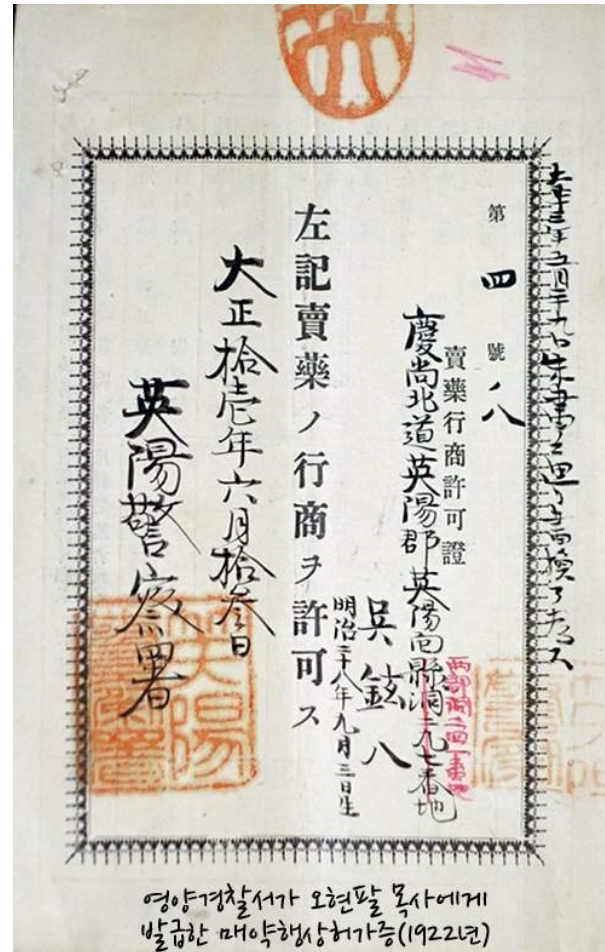
- 한의사
- 1923년 연희전문 졸업
- 1913년 9월부터 **항일**  
**모의 군사훈련** 시작.
- 광복단 경북도책 간부  
및 영양군책.

정우로부터 국민훈장 목련장(항일독립운동 및 사회유공)을  
수여받고 있는 오현팔 목사(1971년 12월 20일)

- 1919년 3월 독립만세운동으로 체포 구금
- 1919년 10월 소총 50여정 구입 및 일제와 총격사건  
으로 3년형 받음.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 세워진 독립투사 호암 오현팔 목사 (1895~1972, 영양교회)의 추모비(1982년 10월 9일 제막)



영양경찰서가 오현팔 목사에게 발급한 매약행상허가증(1922년)

매약행상허가증  
(1922년)



1961년 8월 17일 부강 부영초등학교 운동장  
좌측부터 이종만 박사, 정인소 박사, 성낙소 박사, 이신 박사, 장성만 박사

## 정인소 박사

- 국회의원 (5.16군사정변 48시간 전)
- **일제 때 128회 투옥**
- 국학대학 교수, 국민대학 교수, 청주대 대학원 원장
- 신생활일보사 이사장,
- 한국세계어협회회장
- **방송설교.**



S. K. DONG In His Native Korean Dress



S. K. DONG, Sanki Hoksei, Korea  
B. D., Garrett Bible Institute

**Sanki Hoksei는  
함경남도 북청군 '삼기  
(三岐/삼거리) 북서'란  
뜻**

**동석기 목사/전도자  
(교역자회)**

**1919년 3월 1일  
파고다공원 집회  
및 만세시위에  
참여 독립운동가  
1919년 8월 경성지방법  
원에서 판결 받고 복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목회자들은  
신사참배 및 '일본기독교조선교단' 통합 반대**

**1944년 6월 30일까지 조선총독부로부터 포교  
소, 포교자 및 포교관리자 모두 폐쇄 당함.**



## 폐쇄당한 후 지하교회로 살아남은 두 교회

- 돈암동교회와 내수동(경성)교회 (1943년 필운동으로 이전)는 해방 전 직후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발전에 힘쓴 파종 겨자씨앗이었다.
- 최상현과 성낙소는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게 기쁨을 공급한 두 감람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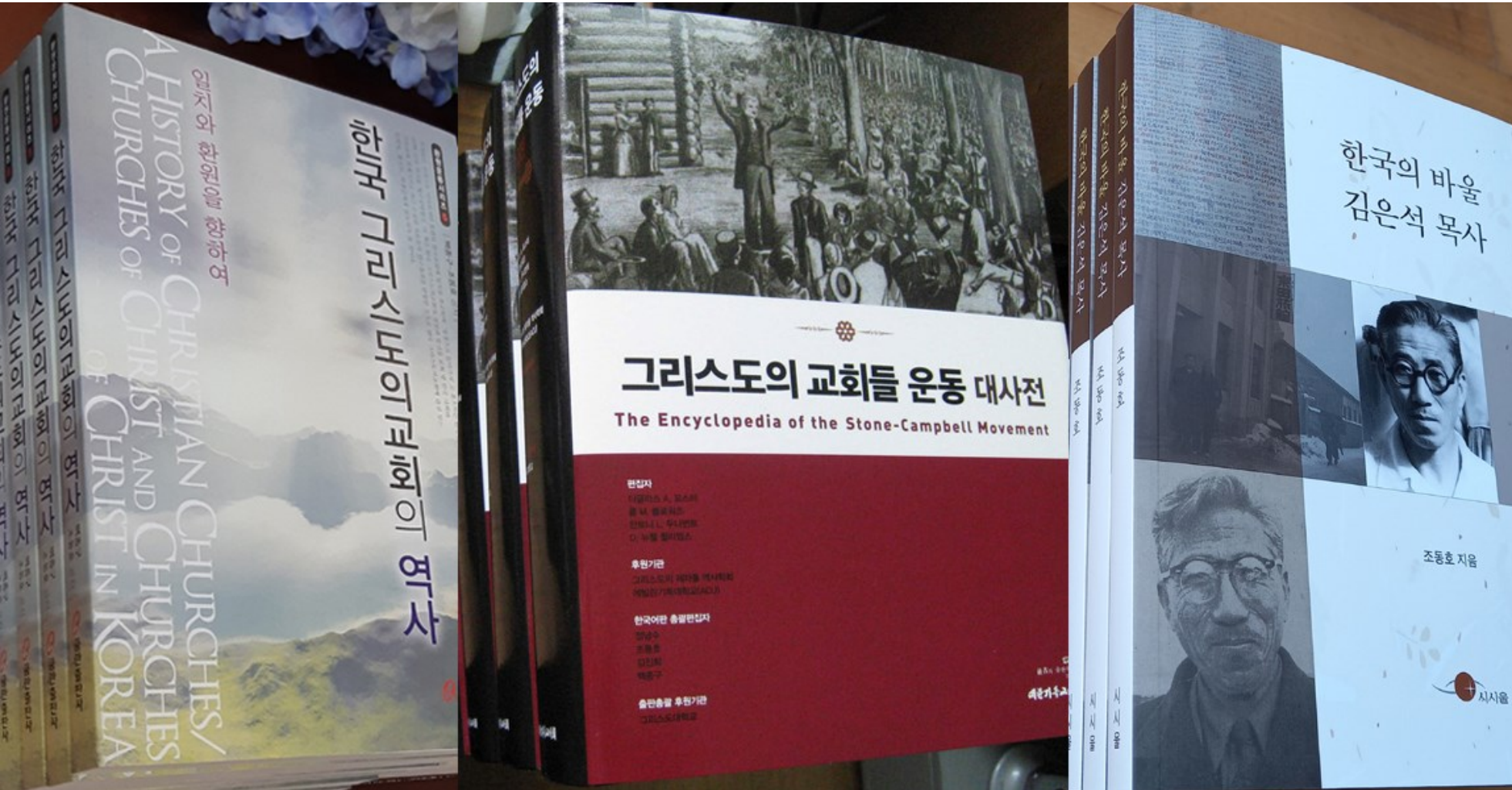
성낙소 목사(1890-1964, 내수동, 필운동교회). 한문수학, 경성구세군 사관학교, 경성성서학원, '동경사목선교회 기독교회' 포교 관리자 역임

'기독교(그리스도인의)교회'의 두 감람나무와 등잔대(승 4장, 기 11장)

최상현 목사(1891-공산군에 피남) 연희전문학교 제회 졸업, 연경대학교(수학), 협성신학교 졸업, <신학세계> 편집인 역임



# 참고 서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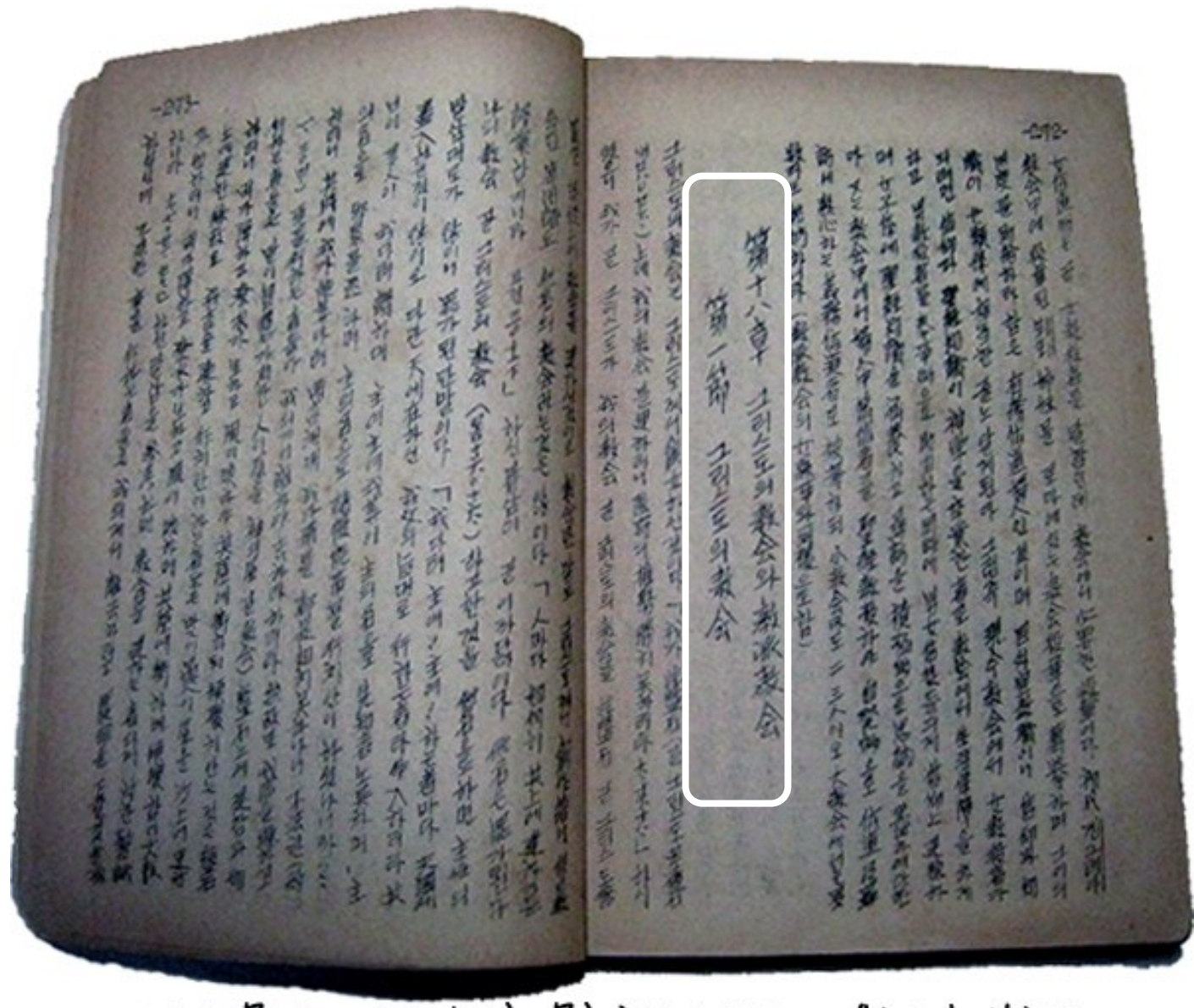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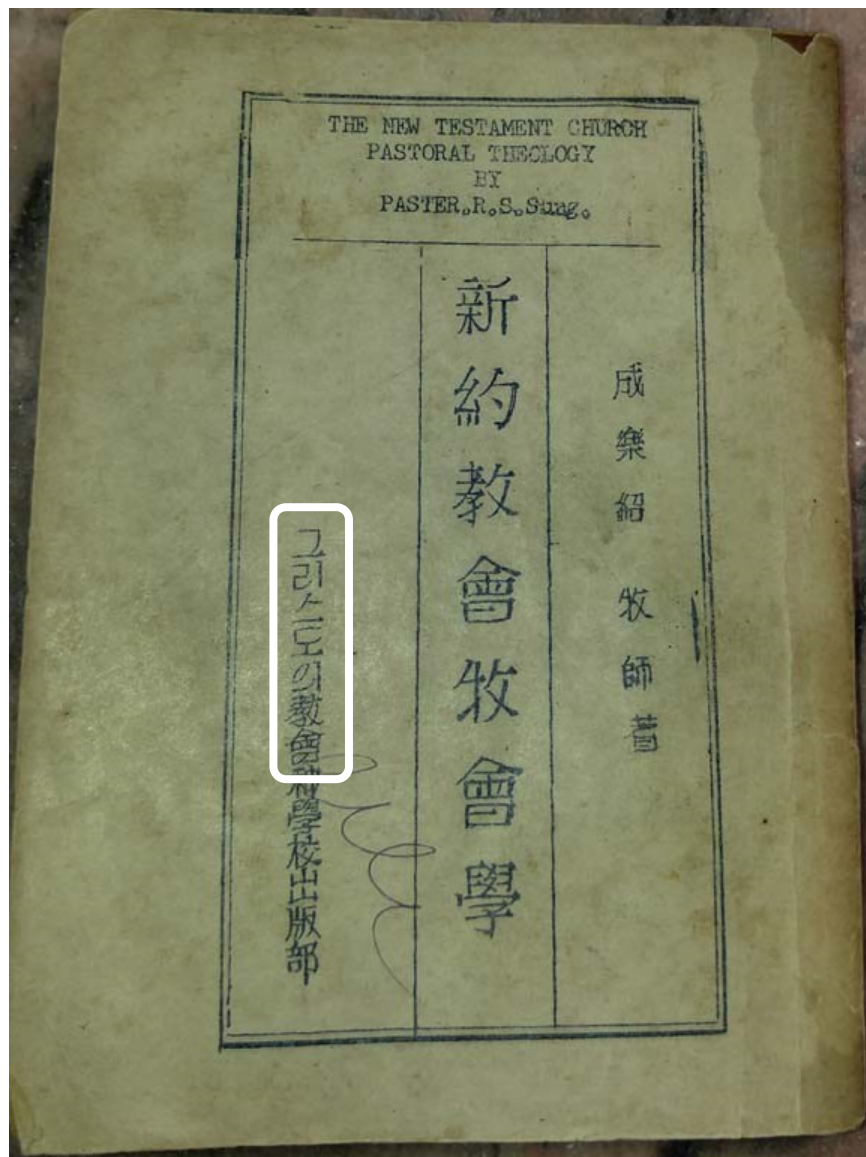
# 1.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 (협의회/총회)의 명칭

●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 1932년 6월 11일부터 1936년 7월 8일까지 (요츠야선교부)

●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 1936년 7월 8일부터 해방직후까지 (요츠야선교부)

● '기독교회' (基督敎會 南大門通) - 1935년 4월 25일부터 해방직후까지. \* '南大門通' = '南大門路' (현 협의회 및 총회)

● '그리스도의 교회' - 해방직후부터. 예: '1946년 그리스도의 교회 합동 선언문' (성낙소와 최상현)



성낙소 목사의 <신약교회 목회학> (1953년 7월 3일 발행)  
 '제18장 그리스도의교회와 교파교회' 272-3쪽 부분

## 2. '한국 그리스도의교회들' (교역자회)의 명칭:

- '기독교교회' (基督の教會) - 1937년 5월 12일부터 해방직후까지
- '그리스도의 교회' - 해방직후부터

### 3. 미국 스톤-캠벨운동(환원운동)권의 명칭

#### ➤ 분열이전 1세기 (1804년부터 1906년까지)

- Disciples of Christ
- Christian Churches
- Churches of Christ

#### ➤ 분열이후 1세기 반 (1906년부터 1900년대 중반까지)

- Disciples of Christ, Christian Churches, Churches of Christ)
- Churches of Christ

➤ 1960년대 이후 현재

- Churches of Christ (교역자회)
-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협의회/총회)
-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제자회)

# I. 도쿄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선교(1924-45)

## 1.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시작



William D. Cunningham  
(1864.07.19-1936.06.24)

- 1907년 초 - 도쿄주재 요츠야(四谷)선교부(Yotsuya Mission)의 윌리엄 D. 커닝햄, 오사카성경대학의 M. B. 매든 평양 대부흥운동 직접 목격.

- 1924년 3월 25일 - 커닝햄 부부 선교기지 물색 차 경성(서울) 방문.

- 1930년 4월 27일- 제1호 '그리스도(인)의교회' 조직-  
1929년 3월 26일 파송된 박흥순(장로교 목사)이 계동에 설립.
- 1941년 요츠야선교부 한국선교 포기
- 1941년 4월 1일 새 종교법 시행. 외국인 선교 및 후원 중단.
- 1941년 3월말까지 17년간 한국에 교회 17~19개 설립  
(성경훈련원/아현동, 한국인 사역자 13명과 여전도사들).
- **1941년 12월 7일 태평양전쟁 발발.**
- 요츠야선교부의 한국인 사역자들의 대다수가 **성결교회 출신.**
- 요츠야선교부는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지 않음.

➤ 남한의 대표적인 교회  
인천송현기독교교회(유치원, 신학원)



윌리엄 커닝햄(William D. Cunningham) 선교사가 소천 3개월 전 토마스  
히치(Thomas G. Hitch) 선교사와 방문했던 인천송현기독교교회(1936년 3월)

## ➤ 인천송현기독교회-일제강점기말 정황

- 1943.5 일제 탄압으로 금곡동기독교회와 유동(화정)기독교회가 송현기독교회와 **통합**
- **1945.8.12** 개척멤버 유진우 집사 장로장립
- 1945.11 임준식(아현동 성경훈련원 출신) 장로 장립
- 1945.11 개척멤버 정삼선(아현동 성경훈련원 출신) 및 유진우 장로 외 70여명이 분가하여 이후 제일장로교회(통합)로 **재건**.
- 1945.12.10 신신근(평산 무웅) 목사 별세 8일 만에 송현성결교회로 **재건**

# 인천 송현성결교회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귀한공동체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은 다름아닌 교회입니다.”



# 인천 제일장로교회(통합)



➤ **북한의 대표적인 교회**  
**방현기독교교회**  
**평안북도 구성군**  
**공산화로 교회들 폐쇄**



내과  
 의사  
 父子  
 장로 ←

평안북도 구성군 방현(일어로 Hoken)기독교회의 1935-36년 모습.  
 '기독교회'라고 쓴 현판을 건 본당에 600여명이 앉을 수 있었다. 이원균  
 목사는 1933-37년까지 담임하였고, 1936년에 교인이 173명, 장로가 3명,  
 집사가 6명이었으며, 새 예배당 건축 후 구 건물에 유치원이 입주  
 하였다. 건물은 1935년에, 성도들은 1936년에 촬영 되었다. 뒷줄에  
 양복을 입은 네 사람은 좌측부터 이원균 목사, 토마스 핫치 선교사,  
 김영배(동역), 이인범 목사이다. 우측에 양복을 입은 두 사람은 내과의사  
 가족인 아버지와 아들 장로들로 추정된다.



평북 구성군 방항천기독교회 일부 성도들(1936년, 교인 173명, 장로 3명, 집사 7명). 히치(뒷줄 중앙) 좌측이 이원균, 히치 우측이 김영배(통역)와 이인범이다. 우측 양복차림의 두 사람이 내과의사 가족 장로들로 추정된다.

## ➤ 해방 후 형편

- 요츠야선교부의 사역자들 중, 김문화(산 돈암정교회), 성낙소(내수정교회), 이난기(용산교회), 윤낙영(아현정교회), 그리스도의교회들에 합류 및 채이스 선교사와 협력.
- 커닝햄의 조선기독교회의 알렉산더 캠벨 혹은 여호수아였던 이인범 목사, 1949년 1월 3일 금산제일장로교회 부임. 1951년 금산에서 별세.
- 커닝햄의 조선기독교회의 발톤 스톤 혹은 갈렙이었던 이원균 목사, 1955년 침례교회에 부임하여 1969년 82세로 별세.



윌리엄 D. 커닝햄이 제작하여 배포한 1936년도 달력  
 커닝햄은 이 달력을 배포한 해에 미국에서 소천하였다.  
 천안 독립기념관 소장자문실에서 이 달력을 볼 수 있다.




W. D. Cunningham      Mrs. Cunningham

They were married in 1898 and volunteered for work on the foreign field. Four times in four years they were rejected as physically unfit. They went out in 1901 with no human promise of help. They earned their own living (as any one with good health and common sense could do) established the Yotsuya Mission, built a home and studied the language.

They both have remarkably fine health. This year they have the unique experience of completing thirty-five years on the mission field. They plan to go to America on furlough in May and return to Japan in November for one, two, or three terms more.



*Circling the Globe with the Plea*


"Unto the uttermost part of the earth" is the command of the Master. This could be done by any one generation. In two thousand years not even a fair beginning has been made. We are failing Him.

✧ JANUARY 1936 ✧						
Sun.	Mon.	Tue.	Wed.	Thu.	Fri.	Sat.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Miss Edith Shimmel      Miss Ethel Jones

Miss Shimmel is from Philipsburg, Pa. Miss Jones is from Granville, Ohio. Both are well educated, consecrated and experienced in Christian work. Both were High School teachers. Miss Shimmel is a graduate of Lock Haven (Pa.) Normal School and of Pierc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in Phila. Miss Jones is a graduate of Denison (O.) University. Both graduated from Cincinnati Bible Seminary.



Mrs. Yun—Korean

Mrs. Yun is a woman of some means who is deeply consecrated to the work of the Lord. Two years ago she gave a large plot of ground on which Eighteenth Church has since completed a new building.

✧ FEBRUARY 1936 ✧						
Sun.	Mon.	Tue.	Wed.	Thu.	Fri.	Sat.
★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 요즈야선교부가 만든 1936년 달력, 천안 독립기념관 소장

## II. '기독교회' 선교부의 한국선교(1935-91)

### 1. '기독교회'(남대문통)의 출범과 J. 마이클 셸리 선교사



J. 마이클 셸리(J. Michael Shelley) 선교사 가족  
(1935.02.24). 한국기독교회 선교를 위해 자원한 선교사로서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도킨 요츠야선교부의  
후원자였고 실행위원의 한 사람이었다.

**셸리 선교사는**  
요츠야선교부  
의 후원자였고,  
실행위원이었  
으며, 요츠야선  
교부의 조선기  
독교회 선교사  
모집에 지원하  
였다.

- J. 마이클 셸리 가족은 1935년 3월 20일경 한국에 도착.
- 1935년 4월 25일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동 5정목 115번지(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기독교회(基督敎會 南大門通)’ 포교관리자설치계 제출.
- 셸리 가족은 건강문제와 커닝햄과의 불화로 1935년 10월 28일 미국으로 영구 귀국.
- 자신을 대신할 조선기독교회 선교사로 존 T. 채이스를 추천.

布教管理者設置法  
 令般布教管理者ヲ設置致候ニ付布教規則等  
 條第三項ニ依リ左記事項ヲ具シ此段  
 條也  
 昭和十年四月十五日  
 京城府  
 朝鮮總督 宇垣一成 敬啟  
 基督教會  
 キリスト教  
 六 教規 特別ニ規定ナラザル者ノ通り各教會ハ自  
 治制ナル、過半數投票ニ依リ職員ヲ任命ス  
 各教會ハ自命ノ罪ヲ悔改シテ洗禮ヲ受ケテ  
 者ニ限リ會員トス  
 二人以上ノ執事ヲ置イテ一般財政ヲ處理ス  
 二人以上ノ長老ヲ置イテ教會ヲ靈的ニ治理ス  
 牧師及傳道師ヲ置イテ信徒ヲ誨導ス  
 上ノ寫書ヲ以テ教養リス  
 儀式、 聖餐 毎日禮日此ヲ行フ  
 洗禮 河又ハ海ニ臨ミテ行フ  
 三 布教方法 布教所ニ於テ布教、巡回布教、  
 家庭傳道、通信布教、路傍傳道、

第三日六  
 第九  
 十四

12.5.13  
 10.4.26  
 043977

J. 마이클 쉘리(1890.06.07-?)가 1935년 4월 25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한 '포교관리자설치기.' 설치 주소가 '경기도 경성부  
 남대문동 5정목 115번지'로 되어 있다.

## 2. '기독교회'(남대문통)의 발전과 존 T. 채이스 선교사



영국해외성서공회가 소유했던 이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던 채이스 선교사는 1939년부터 매입을 추진하였다.



채이스 선교사가 1936년에 설립한 기독교회선교부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직인



John T. Chase(1905.09.17-1987.05.24)

- 1927년 3월 4일부터 1934년 10월까지 W. D. 커닝햄(Cunningham)의 요츠야 선교부에서 7년 8개월간 월급 선교사로 헌신하였던 **존 T. 채이스(John T. Chase)** 가족이 서울에 도착한 것은 1936년 11월 7일이었다.
- 1937년 2월 25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J. 마이클 셸리를 존 T. 채이스로 바꾸는 포교관리자변경제를 제출하였다.

事務局長

社會教育課長



主任 事務官

Handwritten signature and date '12.5.4' in the top left margin.

Handwritten signature and date '12.5.4' in the top right margin.

布教管理者變更及更屆  
令般都合ニ依リ當派布教管理者在託・通り  
變更致候候間新舊布教  
此段且御届候也  
昭和十二年二月五日  
東京道東城南大門通りヨリ  
舊布教管理者 Michael Kelly  
東京道東城南大門通りヨリ  
新布教管理者 [Signature]



朝鮮總督 南木 殿

一、東京教及共、教派ノ名稱

基督敎

基督敎會

二、舊布教管理者ノ姓名

名、ミカエル・キンゼリー

三、新布教管理者ノ姓名

東京道東城南大門通りヨリ  
新布教管理者  
名、ミカエル・キンゼリー

官報掲載案

布教管理者變更届

布教管理者變更届ヲ提出

シタル者左ノ如シ

届出日	届出者氏名	届出場所	届出理由
昭和十二年一月十五日	基督敎會	東京道東城南大門通り	新布教管理者ノ提出



1108

체이스가 신청한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 및 관보게재안 (1937.02.25)

1109

## ➤ 존 T. 채이스(John T. Chase)의 주요업적

- <한국인 전령>(*Korean Messenger*) 발행-1937년,
- ‘기독교회선교부’ (Korean Christian Mission) 설립-1937년,
- 송월동선교부 건물 임대 및 매입 -1937~39년)
- ‘한국인성서훈련원’ 개교-1937년
- 태평양전쟁 전까지 5개 교회 설립
- 선교사들 모집 - 존 J. 힐(John J. Hill) 가족
- 1949년 3월부터 1950년 7월까지 Christian Standard지와 함께 ‘한국에 예배당을!’ (Chapels for Korea) 짓기 위하여 **5만 62달러 90센트 모금.** 비교: 목회자후원 10불, 임대료 15-20불.

# 기독교회선교부의 '한국인성경훈련원'의 교육생 겸 목회자들

성수경 학생  
1937년 12월  
24일 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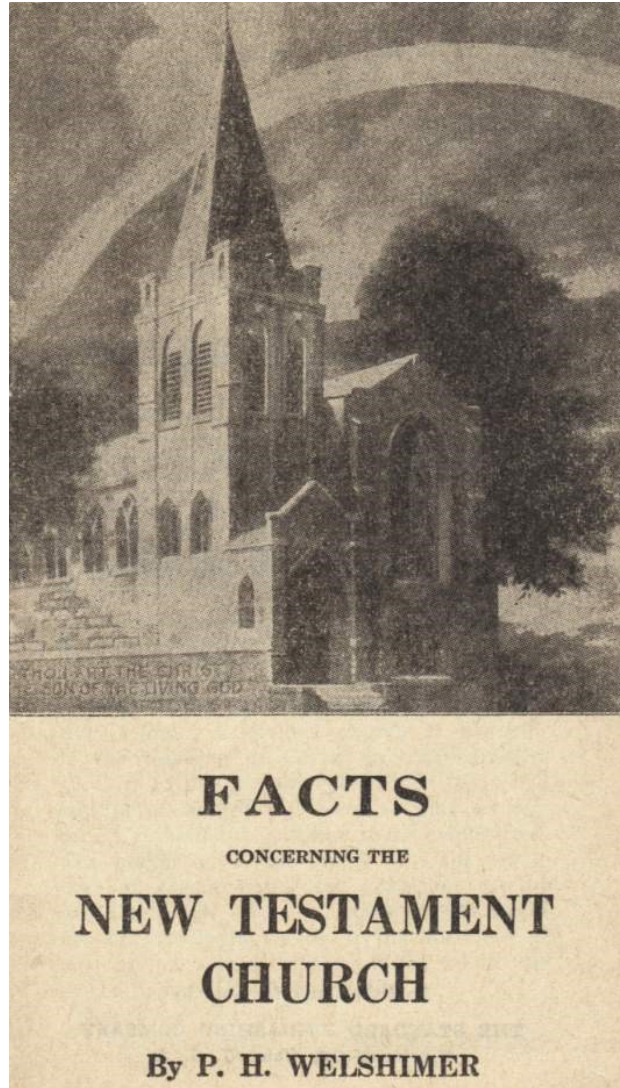
1937년 가입 멤버들

체이스 선교사의 사역자들/신학생들(1938년 1월경), 성낙소(1939년 봄/합성)  
좌측부터 성수경(성낙소의 아들), 박판조 목사(정릉리교회), 허낙중  
목사(왕십리교회), 김요한 목사(신당정교회), 체이스 선교사, 최시상현  
목사(동암정교회), 김문화 목사(산동암정교회), 성낙소 목사(내수정교회)

성낙소 목사  
1939년 초  
가입.

1936.09.04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에서 포교폐  
지 당한 후  
1937-38년  
'조선예수교  
회'에 소속.

# 한국인 성서훈련원의 최초 교재



never taken it from them. It is the Lord's Table and is spread for His people, and no man, or company of men, can rightfully deprive one of God's children from partaking. Close communion is un-Scriptural.

III. *How often partake:*

From Acts 2:42 we learn that the Lord's Supper had a prominent part in the worship of the early disciples. By comparing Acts 20:7 and 1 Cor. 16:1, 2, we discover that when the disciples met it was to partake of the Lord's Supper, and it was their custom to meet every Lord's Day. For the first seven hundred years the ordinance was observed weekly. John Calvin said "the change was a contrivance of the devil." John Wesley, advised his people to spread the Table each week.

**PRESIDENT GARFIELD**

Our martyr President, James A. Garfield, who lived and died a member of the Christian Church, and was for some years a preacher in the church, was once requested by a lady to formulate a statement which would give her a more definite idea of our position in matters of faith. The following is a copy of Mr. Garfield's statement:

1. We call ourselves Christians or Disciples.
2. We believe in God the Father.
3. We believe that Jesus is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and our Saviour. We regard the divinity of Christ as the fundamental truth of the Christian system.
4. We believe in the Holy Spirit, both as to His agency in conversion and as a dweller in the heart of the Christian.
5. We accept the Old and New Testaments as the inspired Word of God.

6. We believe in the future punishment of the wicked and the future reward of the righteous.

7. We believe that Deity is a prayer-hearing and prayer-answering God.

8. We observe the institution of the Lord's Supper on every Lord's Day. To this Table we neither invite nor debar. We say it is the Lord's Table, for all the Lord's children.

9. We plead for the union of God's people.

10. The Bible is our only discipline.

11. We maintain that all ordinances should be observed as they were in the days of the apostles.

(이 소책자 18-19쪽)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의  
그리스도의 교회 성명서  
1937년 한국어로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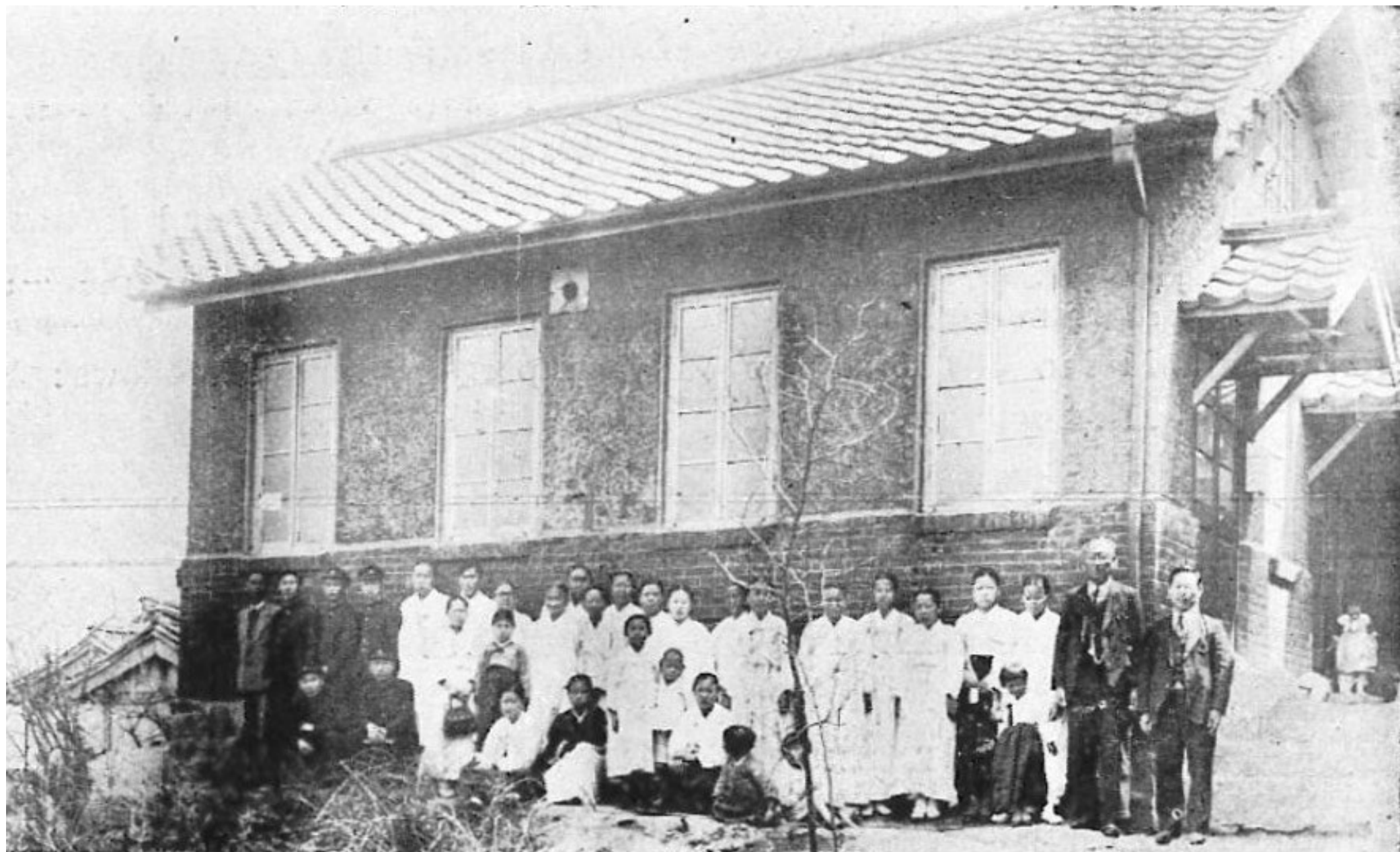


신당정 그리스도의 교회 창립 주년 기념 (1938년 3월 6일)

우측에 존 채이스 선교사, 그 앞에 김요한 목사, 그 옆에 강명석 목사("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설교), 좌측 끝에 박판조 전도사



‘동암정기독교교회’ 최시상형권 목사(1941년 3월)



채이스 선교사의 제3교회, 내수정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낙소 목사(1939년)



채이스 선교사가 1947년 2월 초에 방문했던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채이스는 이 교회를 예전처럼 내수동교회로 불렀으며, 선교지원금 없이 마련된 이 예배당을 희생의 결과라고 적었다.

**1943년 이전, '기독교회'(남대문통)들의 제1호 자기 건물, 사직공원 앞.**



‘산동아침정기독교교회’ 김민화 목사(1941년 3월)



‘정릉리기독교교회’ 방판조 목사(1941년 3월)



화진포 '초도리기독교교회' 송암 승흥 목사(1940년대)



존 채이스(John T. and Wahnetta Smith Chase) 부부



존 T. 채이스 부부의 추모비

### 3. '기독교회'(남대문통)의 새 출발과 존 J. 힐 선교사

26세



18세

존과 에스터 힐(John and Esther Hill) 선교사 부부(1939년)

## 1) 존 J. 힐의 초기 선교활동(1939.06.21-1940.11.16)

- 혼례를 치른지 꼭 한 달이 지난 1939년 5월 23일 존과 에스터 힐 부부는 한국을 향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 1939년 6월 21일 서울(Keijo, 경성) 도착.
- 서울 체류 1년 후 채이스 가족 기독교회선교부 건물구입비의 부족분 모금을 위해서 1940년 6월 1일에 서울을 떠나 18일 미국에 도착.

- **존 힐 부부, 한국에 온지 1년 6개월**만인 **1940년 11월 16일** '마리포사' (Mariposa)호를 타고 **미국으로 철수.**
- **존 채이스 1941년 2월 24일 급거(急遽) 입국하여 3월 말까지 체류. 일경들이 선교사 접촉자들을 소환하여 혹독하게 다룸.**
- **존 채이스 가족과 존 힐 가족의 가재도구들을 모두 팔아** 일 년치 목회자들 사례비와 교회임대료를 마련함.
- **출국 전날 밤, 채이스/성낙소/최상현 눈물의 기도회. 바울과 에베소교회 장로들의 눈물의 기도회 그대로 재현.**

- 존 힐이 존 채이스의 부재 기간인 5개월 반 동안 남긴  
가장 큰 업적은 화진포 초도리기독교회(김요한, 존  
힐)와 왕십리기독교회(백낙중)가 추가로 개척되게  
한 것이었다.

## 2) 존 힐의 태평양전쟁기간의 활동(1940.11.17-1949.02.17)



존 힐(경성성부 송월정 기독교회선교부, 1939-4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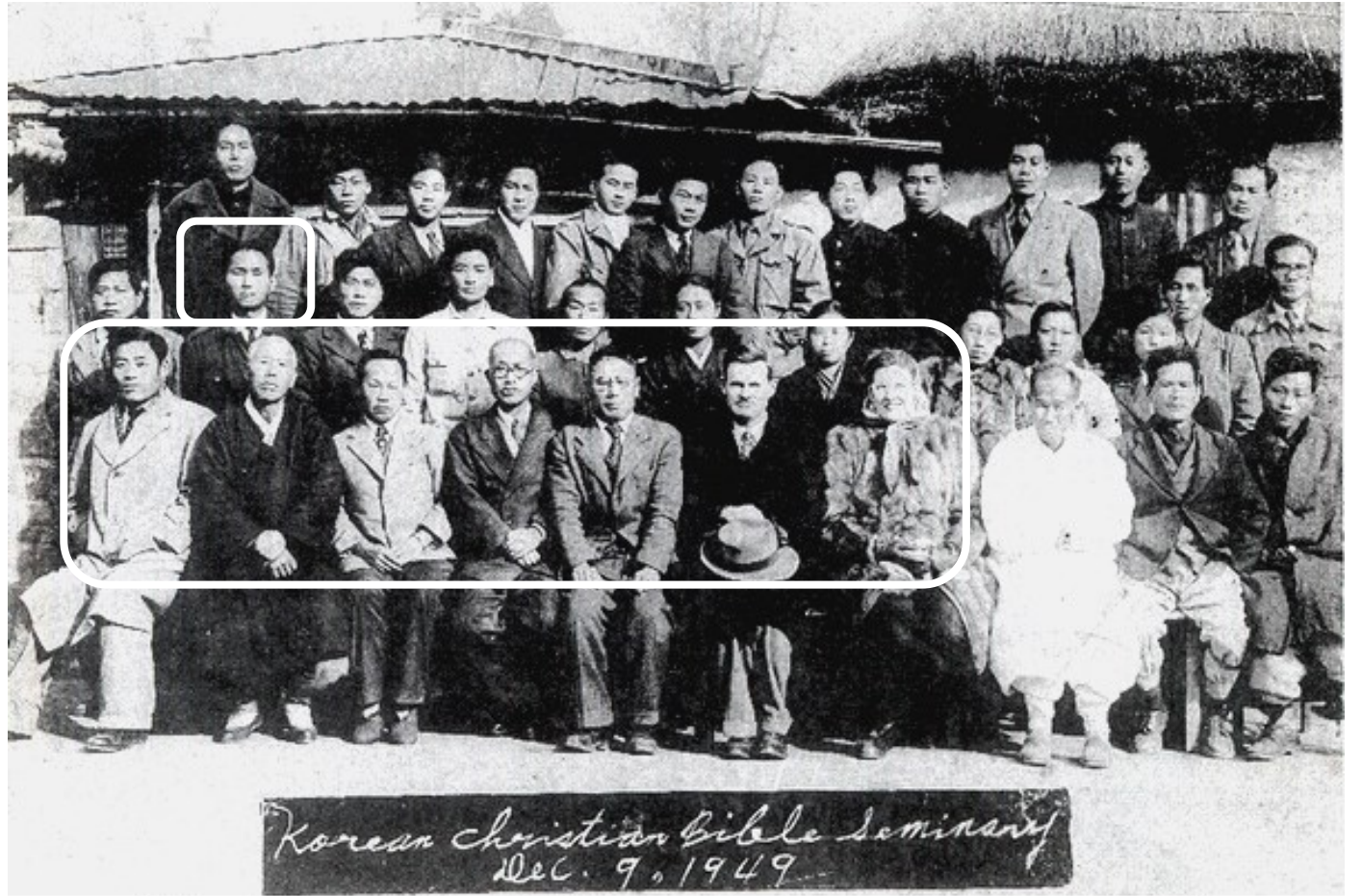
- **군목학교 입학**, 중위로 임관하여 태평양전쟁 참여.
- 제대 후 버틀러대 신학대학원 입학, **1947년 8월 8일 M.A. 학위 취득.**
- 1940년 11월 16일 한국에서 철수한지 **8년 3개월만인 1949년 2월 18일** 서울 도착.

### 3) 존 J. 힐 선교사의 제2차 입국 선교활동 (1949.02.18-1950.06.25)

- 서울에서의 사역 1949년 2월 18일부터 1955년까지.
- 연지동에서 1949년 3월 15일 신학교를 개교,
- 곧이어 필운동그리스도의교회로 옮김. 학생 수 70여명.



한국성서신학교 교수진: 좌측부터 성낙소 목사, 할로한 선교사, 최상현 목사(6.25동란 때 납북), 백낙중 목사(6.25동란 때 피살)



한국기독교성경신학교(필운동그리스도의교회, 1949년 12월 9일)  
 앞줄 왼쪽부터 이흥식, 오현팔, 최춘선(둘째 줄 왼쪽에서 두 번째),  
 성낙소, 최상현, 백낙중, 존라 에스더 비비안즈(Ester Beavans) 할

- **해방직후: 남은 교회 2개**
- **1950년 6월 25일: 42개**
- **5년간(1945-55년) 40개 증가**
- **최상현, 성낙소**는 해방직후 두 감람 나무였고, **김은석**은 충청 이남지역에 세워진 상당수 교회들의 바울이었으며, **미공군 군목 할 마틴**은 미군정시기에 선교사들의 부재를 메웠다.



좌측부터 군목 할 마틴(Hal Martin)과 최상현 목사 선교사가 없던 1947년 후반기에 전군을 명 받고 가족 (Evelyn, Gary)과 함께 김포 항공기지에서 47-48년 사이에 근무하면서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많이 도왔다.

#### 4) 존 J. 힐 선교사의 한국전쟁 중과 직후의 선교활동 (1950.06.26-1955.07)

- 존 힐 선교사 가족은 1950년 6월 26일 새벽 3시경에 인천에서 피난 배를 타고 피난. 일본 도쿄에 임시 거주.
- 1952년경 폴 잉그렘 선교사 가족 입국. 일본 도쿄에 임시 거주.
- 서울 장충동의 임대건물에서 1950년 11월 28일 신학교 개교.

● 존 힐, 1952년에 기독교회선교부 재산을 되찾는데 성공. 공신: 채이스, 힐, 성수경

- 1951년 8월 4일 **기독교회선교부 건물에서 고아 21명을 수용**하여 '그리스도의교회보육원' (1951-1988. 1953년경 부평으로 이전) 시작. 이후 인천(1952-현재), 대전 판암동('애생원', 1951-1970), 대구(1952-1954)에 보육원 설립과 후원.
- **부평 보육원과 대전 애생원은 선교부에서 직영.**



1952년 기독교회선교부 보육원  
공부시간, 성수경 목사와 존 J. 힐 선교사



1952년 기독교회선교부 보육원  
식사시간, 성수경 목사와 존 J. 힐 선교사

“그 가지는 바다까지, 그 새순은 강까지 뻗었다.”  
시편 80:11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스도의 교회

## 4.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장과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



해롤드 테일러 가족(Harold Taylor Family, 1950년대경).  
해롤드, 러렌드(Leland), 글렌(Glenn), 에이다(Ada)



Harold Taylor(1959년경, 1904-1976.05.15)

- **에스더의 한국인들과의 불륜으로 선교사들 귀국 결정:** 폴 잉그렘은 1955년 1월 8일 귀국, 존 힐 1955년 7월 5일, 여성 선교사들도 B형 간염으로 귀국.
- 존 채이스는 1955년 11월 말에 입국한 해롤드 테일러 부부에게 '기독교회선교부'의 모든 사역(목회자 양성, 교회설립, 보육원운영, 등)과 재산(송월동 선교부 건물과 토지, 신학교 교사, 보육원, 등)과 '한국에 예배당을' (Chapels for Korea) 짓기 위해 수년간 모금한 기금까지 모두 물려준 후 **1956년 1월 13일** 한국선교에서 손을 완전히 뗐다.

- 해롤드 테일러는 1955년 한국에 오기 전 중국과 일본에서 베테랑 선교사들이었던 러셀 몰스와 윌리엄 커닝햄의 사역을 지켜본, 경력 선교사였다.

- 테일러는 중국이 공산화가 되는 과정과 제2차세계 대전후 일본의 복구과정을 지켜봤고, 6.25전쟁 직후인 1955년 11월에 한국에 들어와 1960년 4.19혁명과 1961년 5.16혁명을 거쳐 1972년 유신체제까지 격동기 19년을 한국에서 보냈다.

- 그러나 다수의 내국인 사역자들은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를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았다.**
- 테일러 선교사는 한국 토착문화와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목회자생활보조비 지급방식폐지와 비교  
파교회 플랜(비제도, Noninstitutional)을 고집하였다.

- **테일러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서울지역에서 성낙소 목사를 중심으로, 충청이남지역에서 김은석과 이신 목사를 중심으로 표출되었고, 테일러가 주선해서 미국에 유학시킨 내국인 사역자들한테서까지 표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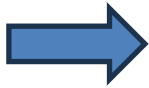
- 테일러는 이런 태도를 **분열주의**와 **교파주의**로 보았으나 일치를 위해 노력했고, 내국인들도 선교사와 관계를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심각한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다.

- 교회는 토착적이고 자생적인 김은석, 이신, 최요한 목사들이 주도한 충청이남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하였다.

## ➤ 리더십의 다변화

- 테일러는 충청이남지역의 교회들과 관계를 쌓아갔으나, 1959년에 대전에 ‘한국크리스찬미션’ 과 한국성서신학교를 세운 **존 J. 힐**과 **리더십**을 나눠 가져야 했다.
- 또 미국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최윤권** 목사, **최순국** 목사, **안재관** 목사 등이 만든 개인 선교회들이 늘어나고, 용산에 대한기독교신학교가 세워짐으로써 **리더십**은 더욱 다변화되었고 변증법적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사진에서  
선교사를  
볼 수 없  
다.



대한기독교신학교 교수 및 학생들(원훈로 임시교사, 1965년경)  
교수진: 좌측부터 김진문 목사, 성수경 목사, 최윤권 목사, 김규상 목사

사진에서  
선교사를  
볼 수 없  
다.



대한기독교신학교 1회 졸업식(1965.12.10). 교수진 우측부터 김진문, 성수경, 강병천, 구강서, 최윤권, 이신, 심영진, 김규상.

## ➤ 테일러(Harold Taylor) 선교사의 주요 업적

- (1) 추락된 기독교회선교부의 지도력 복원과 분열을 치유위한 노력.
- (2) 전국 교회 순회, 상태파악 및 전수조사.
- (3) 기금 배분: 39개 교회들의 수리 보수 및 매입.

(4) 선교지 「한국에 그리스도를」 (For Christ in Korea)  
 일 년에 1-3차례 발행.

(5) 1957년 월간 「한길」 (One Way)을 창간.

# FOR CHRIST IN KOREA

JUNE 1956

## Thank You

Some of you may think of "Taylor's out there all alone." But we don't feel that way. We are conscious of the fact that there is a great number of Christian friends back of us in prayer, and, too, it is by your giving that we are able to be here and to do what we can in Korea. It is a great fellowship in the ministry of the Word and in the ministry of Mercy to these people. We give thanks for you and pray for you daily. From your letters we see that you are aware of the fact that we need help. We are glad to say that we indeed have help. God is with us! It is His work and He is working. We have faced big problems and there are still more, but we are relaxing. We see that we are to do only the difficult (and that with help from above), while the Lord Himself is doing the impossible. All glory is for Him!



On Palace Grounds in Seoul



Opening Day at Fachen Middle School

house reminded us of a Korean bus, filled twice without unloading! I understand that two whole villages tried to get inside that night. It was a good meeting, with four responses to the Gospel. After walking 8 miles, riding fifty (rough) miles and preaching twice, I was ready for bed. But, no, we will first have a meeting with the young people and go to bed later!

On Monday we had a baptismal service in a pool beside the rice fields. Then we walked back to Kimchon and took the train to Shintan where Bro. Kim Dong Yul has been pastor. I spoke on "The Bride of Christ," and learned afterwards that there were two Methodist preachers in the audience! The next day we had an early start with our first message at the 4:30 a.m. prayer meeting.

Then some more sleep before breakfast and trip to the n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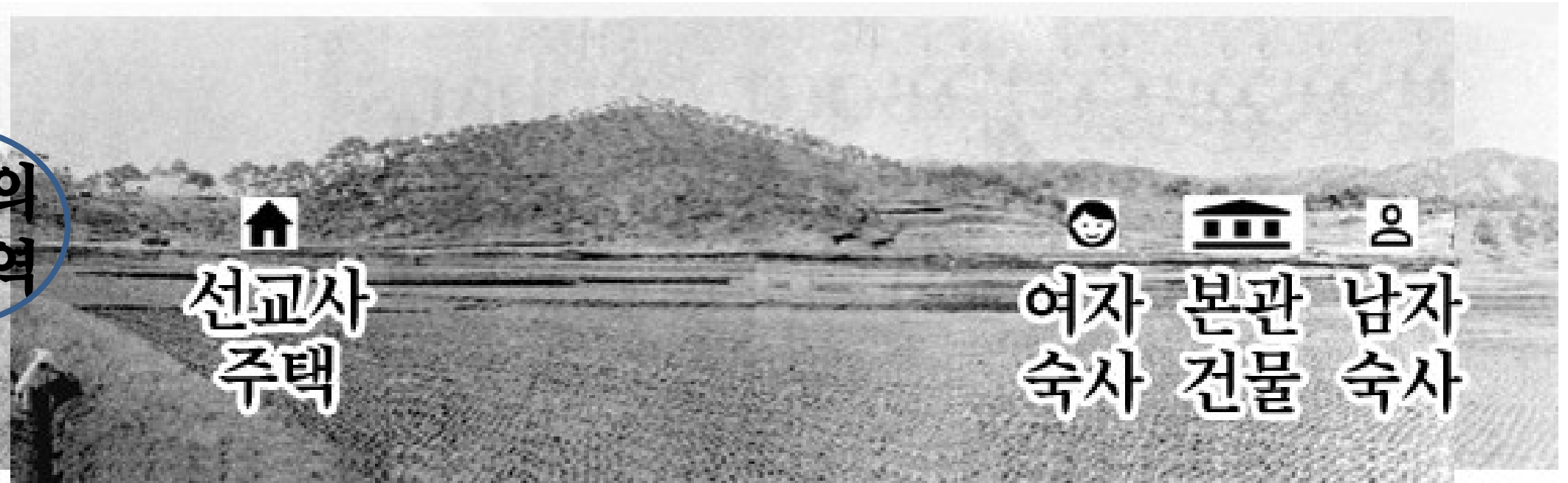
stop of the train. Here Bro. Kim joy for you folk and for us to help these innocent victims. Surely as Christians we can do no less.

Two more handicapped children were pointed out to us. They are deaf and dumb. Another, a small girl, though she is 12 years old, caught our eye. She was inside one of the rooms, and we noticed that she seemed to be in distress. Although she might easily be judged one of the prettiest children among the 150 in the Inchon Orphanage, she wore an expression which dug deep into one's sympathy. We thought, "What would the folk in the States do if they could see her?" But we knew the answer, from the many responses which have been made to the call of Korea's needs, both through missionaries and by the U.S. servicemen. The next day we made an appointment at the hospital in Seoul and she entered there the following week. She is now back at the orphanage, in a cast after an operation on her back. They said it was "T.B. of the bone." Bro. Ee, in charge of the Orphanage, says that this girl has good faith in the Lord, and we know that the Lord is able, so let us pray for Miss Kim Hyun J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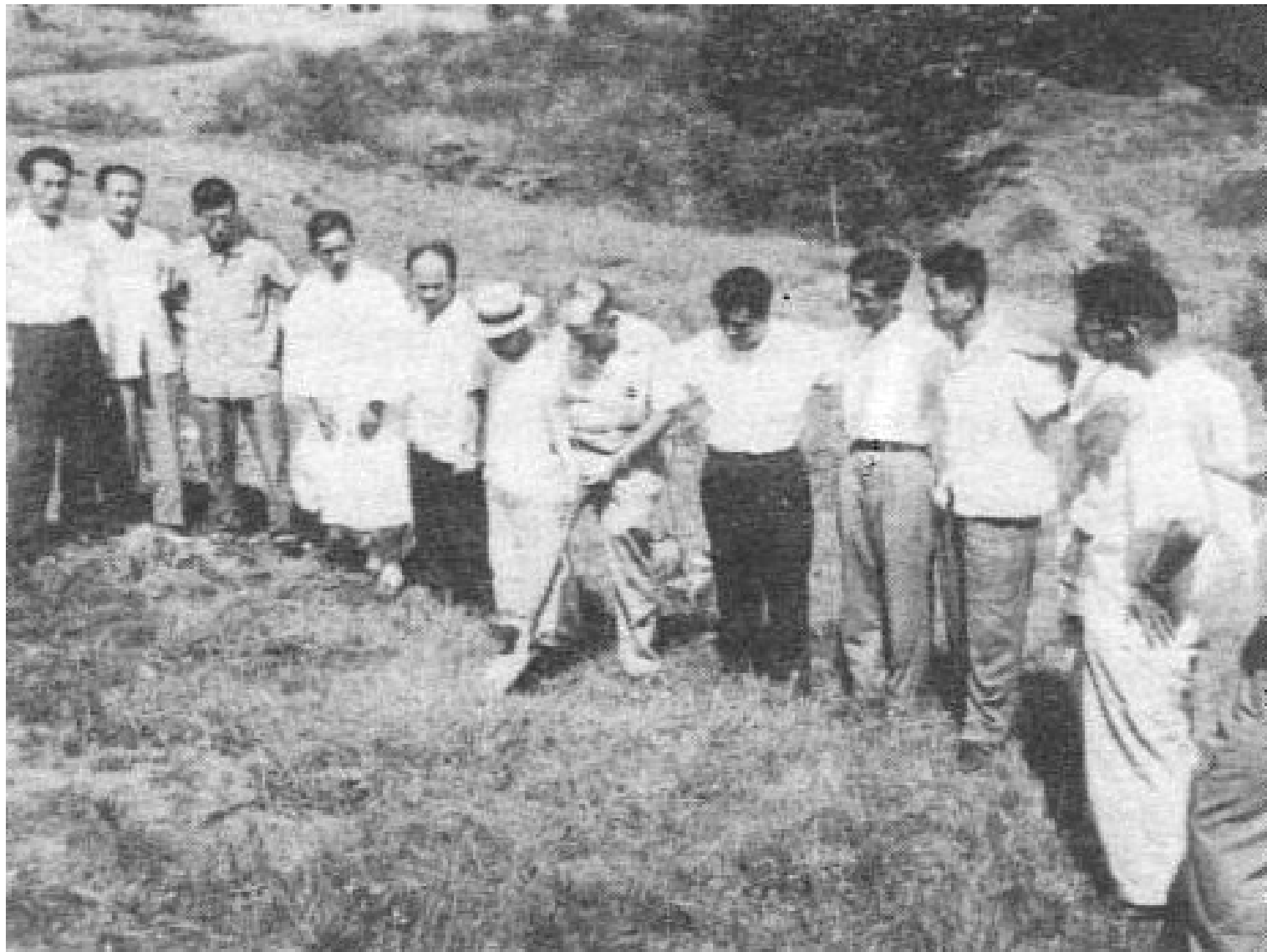
We have had one other similar decision to make with another girl, this one the small daughter of one of the preachers. We saw her at her home at Kimchon on April 1st. She is 10 years old. I saw that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her eyes. They said that she was slowly losing her sight. Knowing that this

## (6) 신학교 캠퍼스 이전 프로젝트를 실행.

현재의  
응암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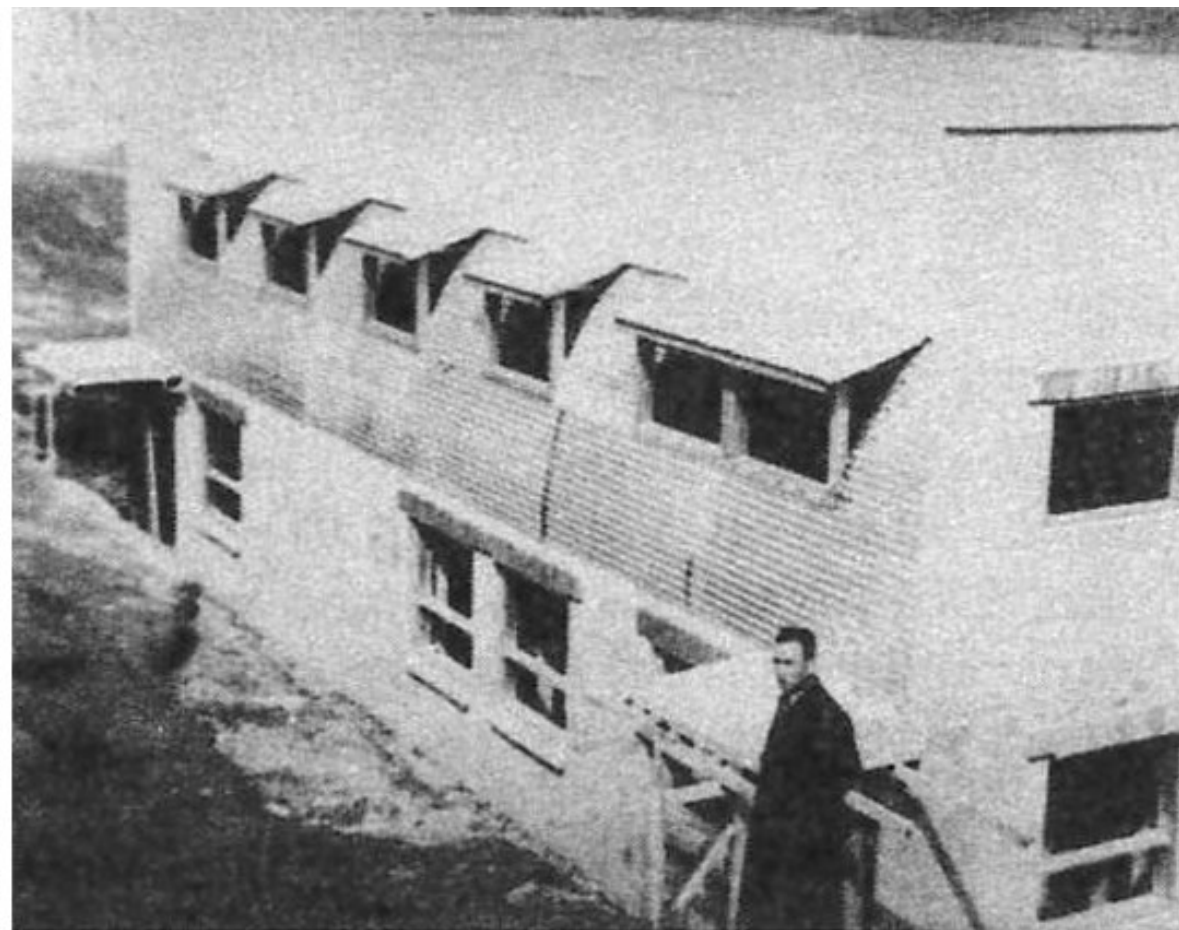
역초동의 7,087평경의 서울성서신학교 새 부지(1960년).  
구 송월동 '기독교회선교부' 부지는 총 396평이었다.



서울성서신학교 기공식(1961년 8월 28일)  
12개 교회들의 대표자들이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건축 중인 서울성서신학교 본관(1961년 12월)



건축 중인 서울성서신학교 여기숙사(1961년 12월)



1963년 서울성서신학교 개교식

앞줄 왼쪽부터 김진문 목사, 박두진 시인, 정인소 박사, 최윤권 목사,  
해럴드, 에이더 테일러 부부, 고든, 사촌 파튼 부부, 한사람 건너 차원홍 목사

(7) 보육원 직영 (부평, 대전 판암동) 및 후원 (인천 송의동) 및 구호물자 보급.



부평 보육원(좌측 상), 인천 보육원  
(좌측 하, 송의동교회), 대전 판암동  
아서생원(우측)의 1957년 모습

## (8) 중학교(3개) 설립 및 후원.



포천중학교(조각 상, 1956년 개교일),  
신갈중학교/신갈교회(조각 하, 1957년),  
영광농축기술학교(포천중, 제회 졸업식)

(9) 1961년 3월 13일 재단법인 '그리스도의교회복음회유지재단'을 설립.

(10) 선교사 가족들 모집.

- 리처드 래쉬(Richard and Melba Lash) 가족
- 고든 패튼(Gorden and Sharon Patten, 배도은) 가족



래쉬 선교사 가족(좌측부터 리처드, 돈, 도로시, 멜바, 1957년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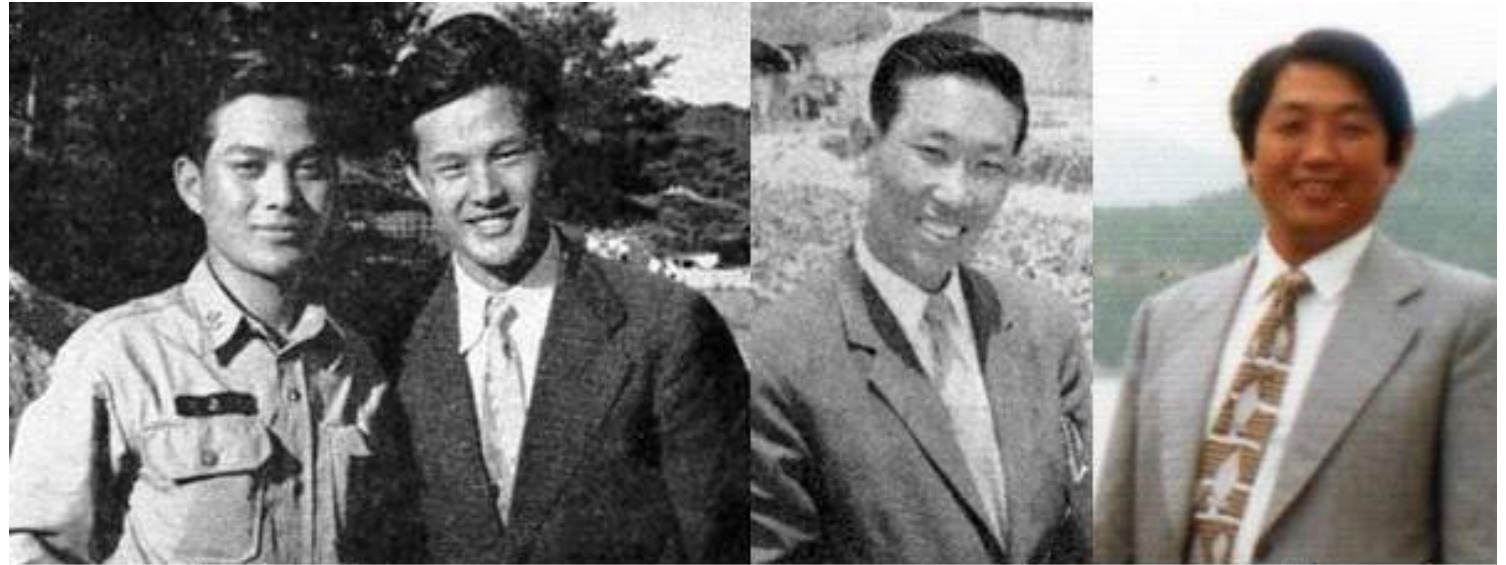


고든 패튼(배도은) 선교사 가족(1962년 입국 당시의 모습)  
좌측부터 레이첼 마리(Rachel Marie), 샤론(Sharon collver)과  
고든 패튼(Gorden H. Patten) 부부, 리베카 루스(Rebekah Ruth).  
패튼 선교사는 1980년 한 해 동안에 부인 샤론의 별세와 네 딸 가운데  
장녀 리베카 루스가 존스성경대학 재학 중에 별세하는 큰 고통을 겪었다.

# (11) 내국인 젊은이들을 미국에 유학 주선.

## 테일러의 오른 팔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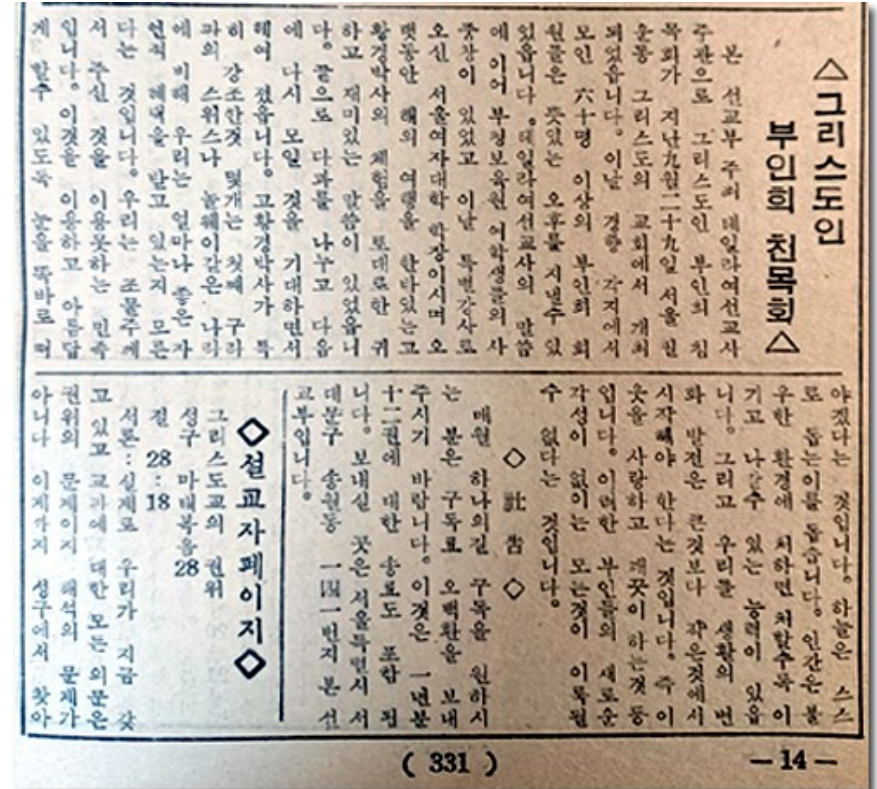
테일러 선교사의 협력자 및 대한기독교신학교 설립의 주역들



좌측부터 최윤권 목사(1956년, 중위로 제대 후 1956년 12월 31일 도미 유학), 최순국 목사(1956년, 1958년말-1959년 초 도미 유학), 안재관 목사(1959년, 1960년대 초 도미 유학), 김진문 목사(1980년대, 1970년대 초 도미 유학)

# (12) '그리스도인 부인회 친목회'를 조직.

- 제1회 초청강사: 고헥경 박사(서울여자대학 학장)
- 제2회 초청강사: 김윤숙 박사(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그리스도인 부인회 친목회 제회 모임 기사  
1961년 9월 29일 필요동교회에서 60명 이상의 부인들이 모여 제회 모임을 개최하여 서울여자대학 학장 고헥경박사의 강연을 들었다<한길: 하나의 길>(1961년 10월호): 14.

### 3) 은퇴 후 생활



해롤드 테일러(Harold and Ada Taylor)

- 해롤드 테일러는 만 70세 때인 1974년에 은퇴하였다.
- 해롤드는 1976년 5월 15일 만 72세로 별세하였고, 부인 에이더(Ada)는 1980년 10월 만 74세로 별세하였다.

### III. 증가한 선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장

## ➤ 성장 동력의 확장

-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인 선교사들의 선교회들과 미국에서 공부한 내국인 사역자들이 만든 선교회들이 증가하면서 성장 동력이 확장되었다.
- 신학교도 서울성서신학교 한곳 뿐이던 것에서 대한기독교신학교와 한국성서신학교(대전)가 추가로 설립되었다.

## 1950년대 말부터 선교회들이 증가하게 된 이유

-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선교정책이 직접후원선교방식이기 때문이었다.
- 직접후원선교란 선교사가 총회나 협의회로부터 파송받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이 후원자들을 모집하여 선교사가 되는 방식을 말한다. 이것이 미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신학교들에서 공부한 미국인들 뿐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에게 후원자를 모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했지만, 주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일 것이다.

- 그러나 내/외국인들이 만든 선교회 이름들은 모금을 위  
한 것이었기 때문에 대개가 교단의 공식기구들이 아니며,  
한국에서 쓰였거나 쓰이는 이름들이 아니다.
- 반면에 존 T. 채이스의 '기독교회선교부', 해롤드 테  
일러의 '그리스도의교회복음회유지재단' 및 존 J.  
힐의 '한국크리스찬밋손' (한국그리스도의교회유  
지재단)은 교단의 공식 기구들이면서 법인이다.

## ➤ 고든 패튼 선교사의 주요 업적

- 고든 패튼(배도은, Gorden Harry Patten, 1933.06.24-2018,09.20) - 선교사, 신학교 교장, 교회개척자, 문서선교, 교도소선교, 한국'기독교회'선교부 마지막 선교사.



Gorden H. Patten(1933.06.24.-2018.09.20)

- 1975년 태광출판사를 설립. 1988년까지 총 58권 출판
- <기독교 교리>(1972), <회복된 예언서들의 권위>(1975), <밝혀진 비밀(요한계시록연구)>(1983) 등을 저술
- 1974년에 제6대 '기독교회선교부'의 책임자에, '재단법인 그리스도의교회복음회유지재단'의 제3대 이사장과 제4대 '서울성서신학교' 교장에 취임
- 서울성서신학교와 대한기독교신학교 통합 합의, 1981년 3월 2일 통합감사예배
- 1984년에는 선교부 건물을 완공, 보람교회, 보람유치원 설립
- 1991년 5월 19일 서울 영동교회 한국 선교 30주년 기념예배

# 강원도와 경상도지방의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성장



25세 무리집의 장성만 목사

- 장성만 목사(1932.11.29.-2015.12.6)는 대 교 그리스도의 교회를 개척하였고, 경남정보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를 설립하였으며, 학교법인 동서학원 이사장, 경남공업전문대학(현 경남정보대학교) 학장 및 동서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영남기독교실업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신입생들이 함께 모였다. 그해 19명이 입학해 2년 후 14명이 졸업했다.

- 장성만 목사는 제11, 1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정당 발기인 및 부산시 당위원장, 민정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의장 및 국회부의 장을 역임하였다.



## 청년 장성만의 성공의 배경

- 대교그리스도의교회 개척
- 알렉스 빌즈, 리차드 래쉬, 마크 맥시(일본 큐슈)
- 명망 높은 처가식구들의 헌신
- 장성만 목사 자신의 능력과 신앙

- 초기 50년사에 실린 장성만 목사 이야기는 전에 알려진 적이 없었던 39살 때(청년)까지의 이야기



Richard G. Lash 라시득(1928-2001)

래쉬 Lash, Richard G. 라시득(羅時得, 1928-2001) 선교사는 강원도 지역 교회개척자, 경남정보대학교 공동설립자.

- 1957년 6월 4일 입국하여 ‘기독교회 선교부’ (테일러)의 선교사역에 참여했다가 1958년 5월 10일 강원도 강릉으로 옮겨가 주문진교회, 강릉교회, 병산교회, 구절교회, 평산교회를 최종목 등과 함께 개척.

- 래쉬는 1964년 부산으로 선교지를 옮겨 1965년 2월 1일 영남기독교실업학교로 2년제 대학과정 출범시킴.
- 래쉬는 학교가 ‘부산실업전문학교’로 인가(승인)를 받아 한국선교를 접고 1971년 8월 31일 영구 귀국하였다.
- 이후 래쉬는 멜바와 이혼하였고, 최규순과 재혼하여 강원도 강릉, 병산 등에서 동역했던 최종목 목사 부부가 거주하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정착하여 살다가 73세로 2001년에 별세하였다.



장성만 목사 부부가 학교법인 동서학원 '부산실업전문학교' 예비인가(1970년 5월 28일)를 받은 후 현판식을 하는 장면

38세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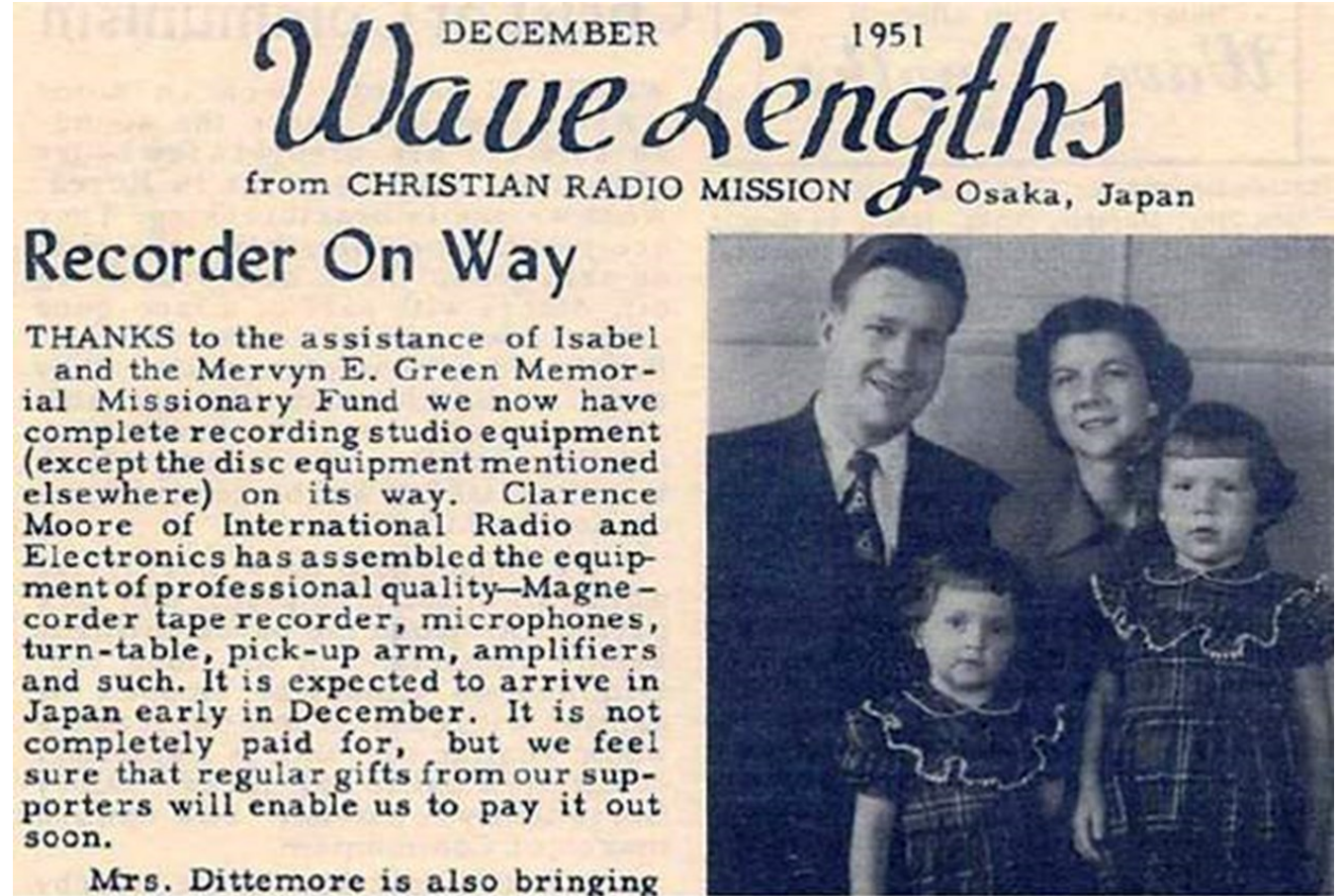
1971년 7월 15일 래쉬 선교사 가족을 위한 송별예배 직후에 장성만 목사는 1966년에 건축된 '알파 홀'을 '래쉬 기념관'으로 바꾼 현판과 벽면에 래쉬 선교사의 미소 띤 얼굴을 부조한 동판을 깜짝 공개함으로써 래쉬 선교사의 노고에 보답하였다.

43세 때

39세 때

# 부산에서의 라디오 방송선교

알렉스와 베티 빌즈(Alex & Betty Bills,  
1921.04.12.-002.05.14) - 라디오  
방송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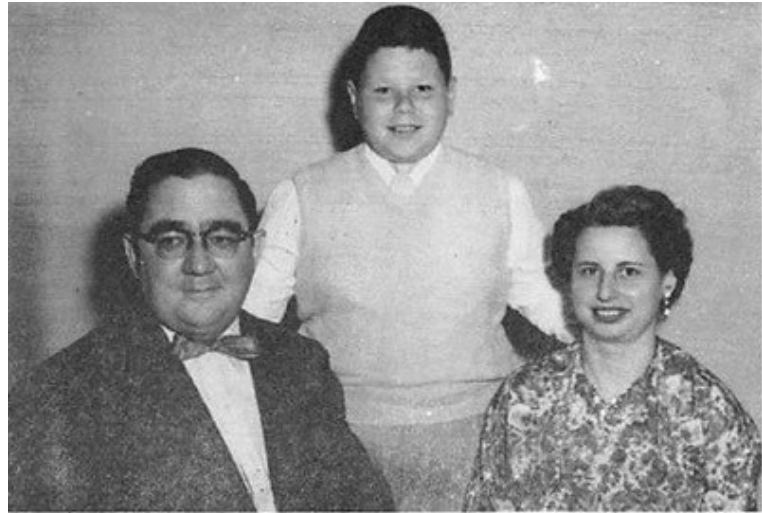


<파장(Wave Lengths, December 1951)지 뒷  
알렉스와 베티 빌즈(Alex and Betty Bills) 선교사 가족  
작은 딸 레베카(Rebecca)와 큰 딸 캐스린(Kathleen)

- 알렉스 빌즈(Alex Verlen Alex Bills) 부부는 라디오전파선교를 위해서 1951년에 일본 오사카(大阪)에 선교사로 부임
- 빌즈는 '크리스천 라디오 미션'(CRM: Christian Radio Mission)을 세워 일본에서 5년간 상업방송국들의 시간을 사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라디오선교프로그램을 방송.
- 월간소식지 「파장」(Wave Lengths)을 발행.
- 1954말 한국정부로부터 기독교라디오방송국 설립(부산) 허가서를 받았다.

- 빌즈는 이 허가서를 근거로 1956년 9월 24일 법인 '크리스천 라디오 밋손'(CRM Incorporated)을 미국에 설립하였으며, 1956년 12월 13일 전 가족이 부산으로 옮겨와 1961년까지 5년간 방송전파선교사로서 선교방송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 뿐 아니라, 후속사업으로 성경통신강좌, 교회개척, 지도자육성 등의 선교사역에 전념하였다.
- 빌즈는 라디오방송국에서 함께 사역할 **일군들을 모집**하였다.

- 플로라 매이 구른지 (Flora Maye Guernsey) 양이 CRM의 업무비서, 음악 보조, 성경 강의를 위해 1957년 10월에 입국하였고, 1959년 2월 25일에 본국으로 돌아갔다.
- 조셉 세겔키 (Joshep & Maxine Seggelki) 가족이 CRM의 업무 추진 담당자(Traffic Manager)로 1958년 1월 31일 입국하였다. 1962년에 한국정부로부터 비자를 거부당하여 재입국하지 못하였다.
- 버트 엘리스 (Bert & Marjory Ellis) 가족이 CRM의 프로그램 제작부 담당자로 1958년 5월 3일 부산을 통해 입국하였다. 엘리스 가족은 1982년 6월경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좌측부터 베트 엘리스(Bert Ellis),  
존(John), 마조리(Marjory)



엑시 제인 플츠  
(Exie Jane Fultz)



좌측부터 에디(Eddie), 보니 조(Bonnie Jo),  
조 세겔키(Joe Seggelke), 맥신(Maxine),  
토미(Tommy), 마크(Mark)



플로라 메이 구른지  
(Flora Maye  
Guernsey)

11 KILOCYCLES  
한국 방송 선교회  
Korean Broadcasting Mission  
Pusan, Korea  
THE BERT ELLIS FAMILY THE JOE SEGSELKE FAMILY  
Volume 1, Number 2 Pusan, Korea July, 1959



이신 목사가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한 젊은 농부에게 설교  
복사본을 건네고 있다. 이 농부는 이신 목사에게 오이와 호박으로  
보답하였다.

## 알렉스 빌즈는

- 1958년 1월 9일 부산시 광안동 부지에서 기공식을 가졌고,
- 1958년 9-10월경에 기초 작업을 시작하여 12월 26일에는 마룻대(ridgepole)를 올리는 상량식까지 가졌지만,
- 자금 부족으로 방송국건립이 끝내 무산되었다.



부산시 광안리에서의 라디오 방송국(CRM) 기공식 모습  
 좌측부터 김홍균, 알렉스 빌즈, 장성만 목사(26세), 1958년 1월 9일.



1958년 12월 26일 상량식 모습  
 알렉스 빌즈 부부(좌측), 김희영 CRM 번역 및 음악번조(우측에서 4번째),  
 장성만 CRM설교 및 대교 교회 목사(우측에서 2번째)

# IV. '한국 크리스찬 밋손'의 한국선교

## 1. 존 힐 선교사의 생애 후반기 선교사역

### 1) 존과 제인 힐(John and Jane Hill) 가족의 재입국과 후반기 생애



존과 제인 힐 부부와 딸 버지니아 힐 선교사 가족  
존 힐(John J. Hill)은 1956년 5월 25일 제인(Jane Kinnett)과  
재혼하여 데니(Denny)와 티나(Tina)를 낳았고, 한국에서 쌍둥이  
형제 리노(Lino)와 더그(Doug)를 입양하였다. 재혼 전에 존에게는  
세 자녀, 브루스(Bruce), 버지니아(Virginia), 수잔(Susan)이 있었고,  
결혼 전 제인은 미혼자로서 몰리 찬이라는 중국인 고아 소녀를 비공식으로  
입양하여 데리고 있었다.

- 1950년대 충청전라지역에서 김은석 목사와 신화 신학 성경연구회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 김은석 목사가 1963년 1월 21일 별세하시면서 존 힐은 김은석의 터전인 충청전라지역을 선교 사역지로 물려받은 셈이 되었다.

- 존 힐이 1955년 7월 5일 한국을 떠난 후, 동년 11월에 '기독교회선교부'를 물려받은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가 4년간 수 차례 순방(巡訪)하고 충청전라지역에 공을 들였지만, 세 가지 정도 이유로 존 힐이 해롤드 테일러보다는 더 큰 영향력을 충청전라지역에서 누릴 수 있었다.

- 첫째는 김은석 목사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테일러 선교사의 후원방식과 정책에 반감을 갖고 있었고, 한국인을 이해하고 사랑했던 힐을 반기는 기운이 역력하였기 때문이다.

● 둘째는 충청전라지역에서 영향력이 컸던 김은석 목사가 1963년 1월 21일 별세하기 전까지 만 3년(1960-62)가량 1959년 10월경부터 존 힐 선교사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왔기 때문이다.

● 셋째는 때마침 이 짧은 시기는 테일러 선교사가 7,087평의 역촌동(현 신사동) 땅 위에 새 캠퍼스를 조성 중이던 때였다. 서울성서신학교가 3년간 문을 닫았던 바로 그 시기인 1959년 12월 1일에 존 힐은 대전에서 한국성서신학교를 시작하였다.

- 따라서 1960년대는 존 힐과 한국성서신학교의 영향력이 충청전라지역에 크게 미친 기간이었다.
- 이 시기는 존 힐 선교사의 생애 황금기였다. 일제의 탄압도, 6·25와 같은 전쟁도 없었다. 학생들과 목회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도 받았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부족한 선교자금이었다. 그는 1972년 6월, 한국 나이로 60세 때 한국에서 은퇴하였다.

## 2) 재단법인 '한국 크리스찬 밋손'의 설립 (1964.04.17)

-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유지재단'으로 개명
- 현재 32개의 교회들 가입.

### 3) 존 힐 선교사가 후원한 학교

- 노봉욱 장로가 세운 논산 순의도 중학교(연무여자중학교),
- 양정식 목사가 운영한 경북 안동북음중학교,
- 장호원
- 충주
- 이리 맹아 어린이학교.



경북 안동군 풍산면 상리 안동북음중학교



충남 논산군 연무읍 논산 순의도중학교(현 연무여자중학교)

#### 4) 존 힐 선교사가 설립했거나 후원한 보육원들

- 존 힐 선교사는 1951년 8월 4일 서울 송월동 선교부에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을 시작하였고, 이종만 목사가 1952년 8월 1일에 설립한 인천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 1950년대 초에 설립된 대전 환암동 그리스도의 교회 애생원, 1952년에 설립된 대구 배성보육원, 1959년 이후 홍경채가 설립한 부산 성광원, 노봉욱 장로가 1959년 10월 15일에 설립한 논산(연무) 에덴보육원에 지속적으로 후원금을 보냈다.



대전 판암동 그리스도의 교회 아서생원



충남 논산군 연무읍 에덴 보육원

- 또 자신의 맏딸 버지니아가 대전 선교부에 1968년에 설립한 보육원(Taejon Christian Orphanage)을 직접 관리하였다. 이 밖에도 충남 부여군 합송리에 구애보육원이 있었다.



(상) 한국성서신학교 개교 당시 교수와 학생들이 (1959-60년 겨울) 충남 대덕군 유천면 도마리 심영진 목사 시무 성화 교회당 앞(현 대전 그리스도의 교회). 앞줄 왼쪽부터 제이과 존 힐 부부, 김은석, 심영진, 김태수, 뒷줄 왼쪽부터 오재건, 고재윤, 뒷줄 오른쪽부터 고광석, 김찬영 (좌하) 성화 교회당에서의 수업 장면: 난로 우편 뒤 고광석, 난로 우편 앞 김찬영. (우하) 1958년 8월에 흙벽돌로 건축된 20평 규모의 성화교회

## 5) 한국성서신학교의 설립과 건축

- 한국성서신학교는 ‘대전성서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존 힐(John Hill) 선교사에 의해서 1959년 12월 1일에 개교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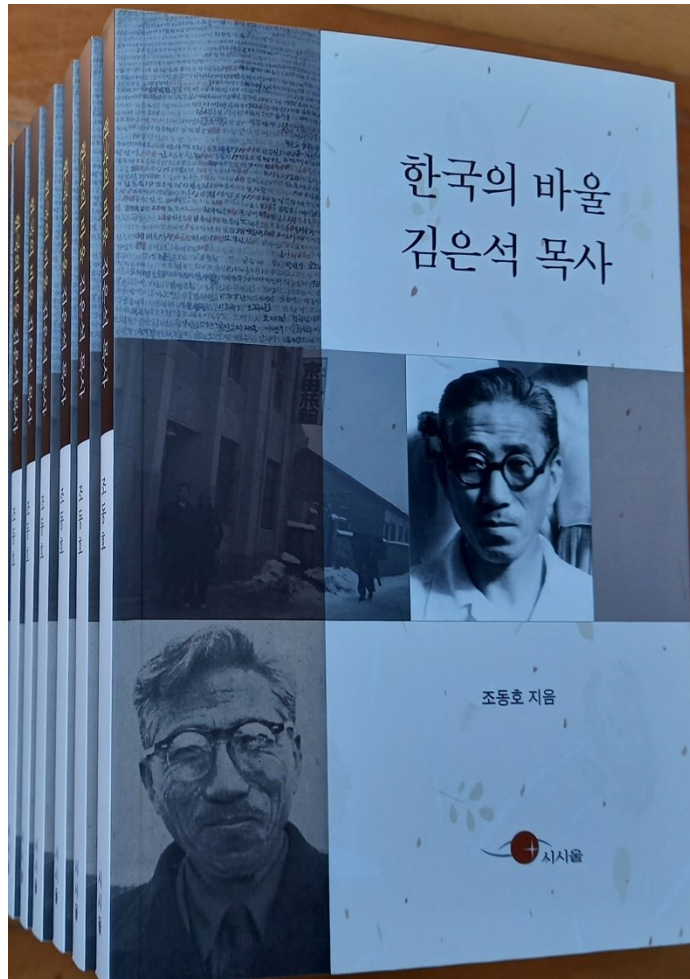
한국성서신학교의 최초 강의실 겸 가장동 그리스도의 교회였던 건물 외벽에 걸렸던 한국성서신학교 현판(이신 목사 제작)

## 이신 목사 작품



1972년 6월 2층 증축공사 완공과 준 할 선교사 가족 송별기념사진 2층 공사가 완공되어 마감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현판 위쪽에 아치 모양으로 한글로 '한국성서신학교'라고 음각하였고, 그 밑에 일직선으로 'KOREA BIBLE SEMINARY'라고 새겼다.

# V.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사도 바울 김은석 목사



-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출범과 초기 50년 역사는 **선교사들과 선교회들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다.
- 그러나 선교사들과 선교회들은 대부분 1980년대에 그들의 시대를 마감하였다.

- 그리고 토종 선교의 기반은 김은석 목사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닦여왔다.
- 1940-50년대 김은석 목사와 신화신학성경연구회는 오늘날 다시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에게 **필요한 동력(動力)**일 수 있다.
- 이것이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초기 50년사>에서 김은석 목사와 그의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마지막 장에 배치한 이유**이다.

- 김은석 목사는 1946년에 부강에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1963년 1월 21일 별세하기까지 대략 16년 동안 신화신학성경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수 십여 개의 개척교회들이 자력으로 세워지게 하는데 공헌하였다.
- 그들은 기본적으로 반선교사 정서와 토착적이고 자생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 김은석과 그의 동역자들의 사례들은 선교사들과 선교회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국인들의 기도와 노력과 헌신만으로도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본보기이다.

## 충청 이남권의 반선교사 정서

- 충청이남지역에 기반을 둔 **김은석 목사와 이신 목사** 등은 성령운동을 하는 목회자들인 데다가 **선교사들 (채이스, 힐, 테일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아니한**, 스스로도 자생적이고 토착적인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목회자들임을 자긍하는 이들이었다.

- 충청이남지역 목회자들은 신화신학성경연구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서울성서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것에 매우 불편해 했다.
- 이견의 핵심은 성령론이었고, 교단조직의 필요성을 느낀 목회자들도 있었다. 충청이남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아니라 성령의 카리스마를 강조한 김은석, 이신, 최요한의 영향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었다.

- 1950년대 초에는 이런 불편을 참지 못하여 정찬성 목사, 김상호 목사(오산리 금식기도원 주임목사로 섬김), 최요한 목사(몇 년 후 돌아와 목포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움), 김교인(1890-1970) 장로 등이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떠나 순복음으로 넘어갔다.

- 최요한 목사가 돌아온 것은 그리스도의교회에 대한 신념 뿐 아니라, 김은석 목사, 이신 목사 등과의 끈끈한 의리 때문이었다.

## 김은석은 성경의 사람

- 김은석 목사는 성경으로 완전무장한 하나님의 용사였다. 성경만을 읽고, 성경만을 말하며, 성경의 내용만을 설교하고, 성경의 내용만을 가르친, 성경에 목숨 건 성경의 사람이었다.

## 김은석은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바울

- 성경 위에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을 세웠던 신약성경교회의 개척자였고, 한국 그리스도(인)의교회들의 사도 바울이었다.

# 그리스도의 교회 75주년 기념대회 모습(2007.08)



예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Qui a JÉSUS a tout

何 だ 分 け 不 道 義 主 教 宗 の 虚 右 証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다.